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을 탁 트이워서 훌쩍 넘어가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부모가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다 하더라도 '아이구, 이거는 지켜워서 어찌나.' 이런 생각 마시고 '아, 이것도 바로 내 탓이로다. 내가 이런 인연을 안 지었더라면 왜 내 앞에 왔을까? 그러니 얼마 안 있다가 또 모습을 타고 나오실 텐데 얼마 안 있다가 난을 안 그러라.' 하고 내 모습으로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공경을 잘하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지켜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히 그냥, 잘하는 척하지도 말고 못하는 척하지도 말고 그냥 여유하게 그냥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대성공을 할 수 있는 지름 길입니다. 자식들을 길러도 그렇게 해야 하고,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모두 살아나가는 게 상대가 모두 일체 만물만생이 전부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풀뿌리를 봐도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죠. 죽어도 죽어도, 아무리 그냥 묻어놓고 아무리 캐버려도 그냥 어디다가 뿌리를 붙이면 살고 그러거든요. '야, 그렇게 생명이 지켜울 정도로 튼튼하고 지켜울 정도로 끈질기게 이어가는 거는 참 처음 봤다. 우리의 인생 근본도 이렇게 영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 봐도 내 스승 아님이 없어서, 어저께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삼세의 일체 부처님의 마음과 또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이 돼준 까닭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으며 또는 행동 하나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실천 한 번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모두 스승이 돼줬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감사하던 말을 다만 말로만 알팍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말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서 허덕허덕해지는데 뭐, 지금처럼 먹는 거나 배불리 먹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 말따나 배는 등가죽에 가 작 달라붙고 땀은 뻘뻘 흐르고, 겨울에도 아이, 물 한 방울을 얻어먹으려고 가나가 물고랑은 이렇게 있는데, 도랑이 있는데 아, 뱀이, 그냥 큰 뱀이, 그건 뱀도 아니고 구렁이였던 모양이죠. 아, 동실동실 틀고 앉았는 거예요, 그 옆에다. 그러니 웬만하면 기절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아주 짐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짐작했던 게 아니고, 내 바른대로 똑똑히 얘기하죠. 하하하. '이래 죽어나 저래 죽어나 죽는 건 누구나가 다 죽는 건데 그까짓 것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

려우냐. 네가 인연이 돼서 네가 나를 물어서 죽인다 하더라도 너를 원망 안 한다.' 그러고는 딱 보니까 목마른 것이 싹 벌어지면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랬죠? 하하하. 아, 원이, 원이 보이는 겁니다. 원이 똥 보여서 그걸 보면서 무심코 '아, 이 세상은 모가 나지 않고 저렇게 동글구나.' 그리고 있는데 어느 틈에 머리를 반짝 뜨는 겁니다. 그리고 햇바닥을 뽕뽕뽕 하는 겁니다. 이제, '오, 고개를 들었으니까 백(白) 자면서 바로 범이로구나. 고개를 일으켰으니까 범이야. 햇바닥을 내밀었으니까 이 삼라만상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다 살아 있구나.' 이거를 느꼈단 말입니다. 그

런데 거기서 그냥 들여다만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하하하.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고만 있으니, 가지도 않고 그러니 그 뱀도 가만히 생각을 하니 오히려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그냥 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아, 그걸 보다보니까 '아, 이 원의 모든 진리는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매사 게 하나하나가 스승 아닌 게 어딴겠습니까? 네? 꼭 말만 해야 스승입니까?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스승이요, 물이 흐르는 것도 스승이요, 밥을 먹고 똥을 싸는 걸 봐도 스승이요, 서로 악다구니처럼 싸움을 하는 것도 스

승이요, 요새 뭐 뭐, 조사하고 이러는 것도 스승이요. 하하하. 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 감사함을 말입니다, 이렇게 느낀다면 누구를 원망할 수 있으며, 누구를 증오할 수 있으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런 말을 하면은 날 건방지다고 하겠지만 나는 여러분과 둘이 아닌 마음, 이 세상천지가 다 둘이 아니게 전달을 하고 돌아갑니다. 마음과 마음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은행나무와 은행나무가 사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꼭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만 보십니까? 사과나무와 사과나무가 사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진달래 나무와 진달래 나무가 사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까? 사과나무와 사과나무가 사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사랑 빼놓고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데 귀정적으로 이 마음을 너그럽게 이렇게 굴렀다 졸았다 할 수 있는 자동적인 자유자재권이 있어야 되는데, 곤충들은 자유자재권이 없어서 꼭 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 자기 몸을 다 바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자기를 뺀다 끼었다 하는 그 지혜에 달려 있는데 그걸 뺀다 끼었다 동글릴 수가 없고 자유자재할 수가 없으니까, 끈이끈대로 그냥 사나간 곤충으로밖에 못 살죠. 어떻게습니까? 사람도 좀 더 마음을 탁 트이워서 훌쩍 넘어가십시오. 이거 그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살니까? 귀신도 무섭다. 아니, 귀신이 친구지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 아, 모두 친구 아닌 게 어딴 겁니까?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이 귀신인데 아,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그렇게 공동묘지에 가서 밤을 새려면, 아마 그믐밤에 새라만 무서워서 짹짹째 실 거지마는 그것도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좀 훌쩍 열면은 아, 우리 몸뚱이는 문으로 열고 닫고 다니지만은, 마음이라면은 이 벽도 소용 없고 붓장도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믿으세요. 좀! 진짜 진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좀. 왜 믿지 못하 고서는 줘다 뺐었다, 줘다 뺐었다 이러십니까? 지혜롭게, 좀 한번 믿었다 하면 믿고 나가세요! 내가 건방지다고 그럴 거지만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거닐다보니까 빗방울이 푹푹 떨어져요. 오늘은 비 오면 안 돼! 그것도 이 '안 돼.' 하는 요건이 적 합해야 됩니다. 응. 이거는 (가슴을 짚어 보이시 며) 내가, 내가 '안 돼.' 하기는 했으나 그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고, 통신이 전달되고, 교류가 전달 되고 그 모든 것에 전달이 되는데, 비가 오면 부 처님들이 비를 맞아, 부처님들께서, 하하하. 우리 하나하나 아주 소중한 부처님들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지혜를 넓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 지혜를 넓혔고 또는 사랑도 할 줄 알았고, 네 자식 내 자식 그런 것도 없는 것을 알았고,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다 하는 것도 알았고, 여러분이 정말 저에 대해선 스승이시며 부처이십니다. 그러니 어디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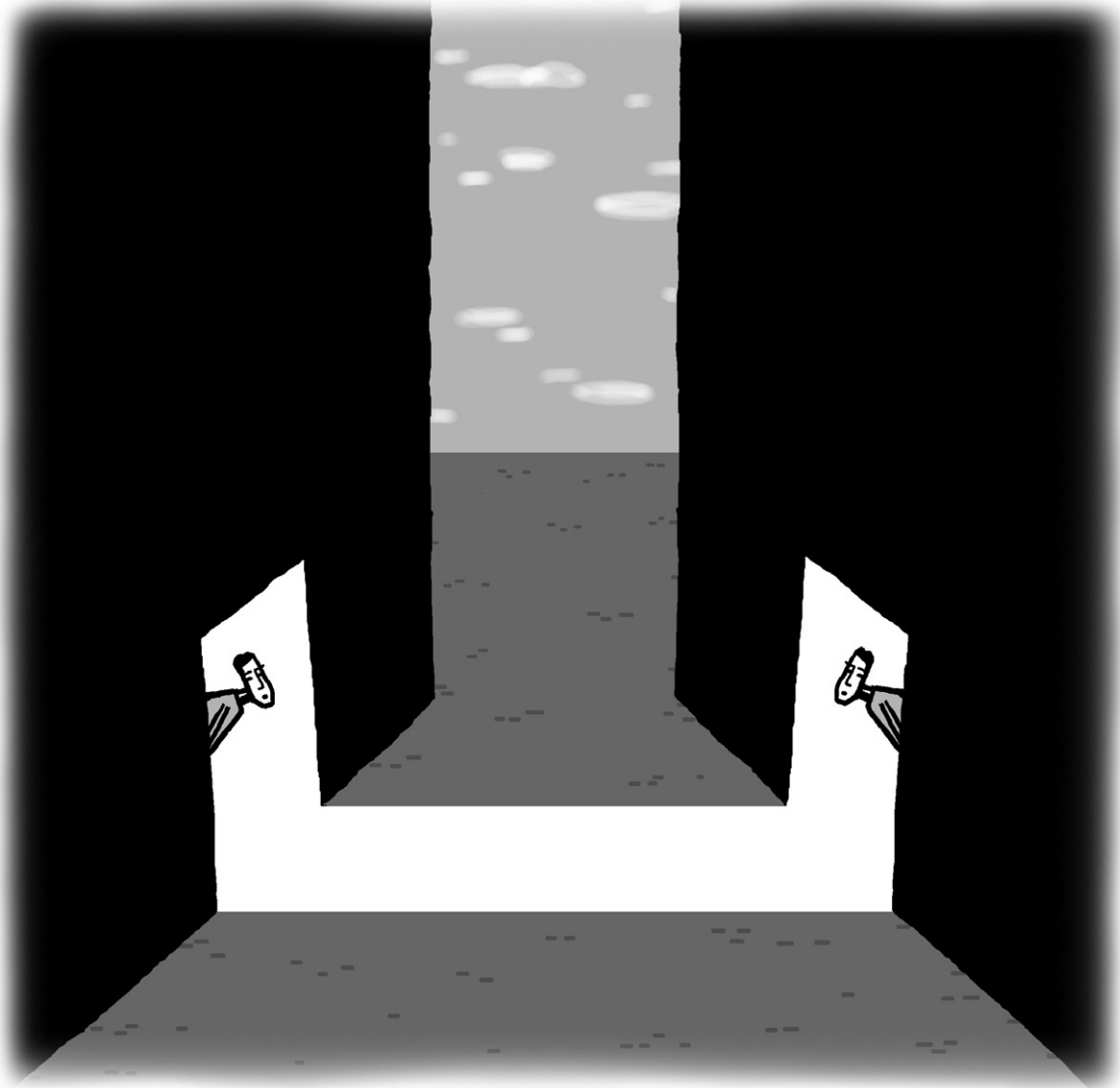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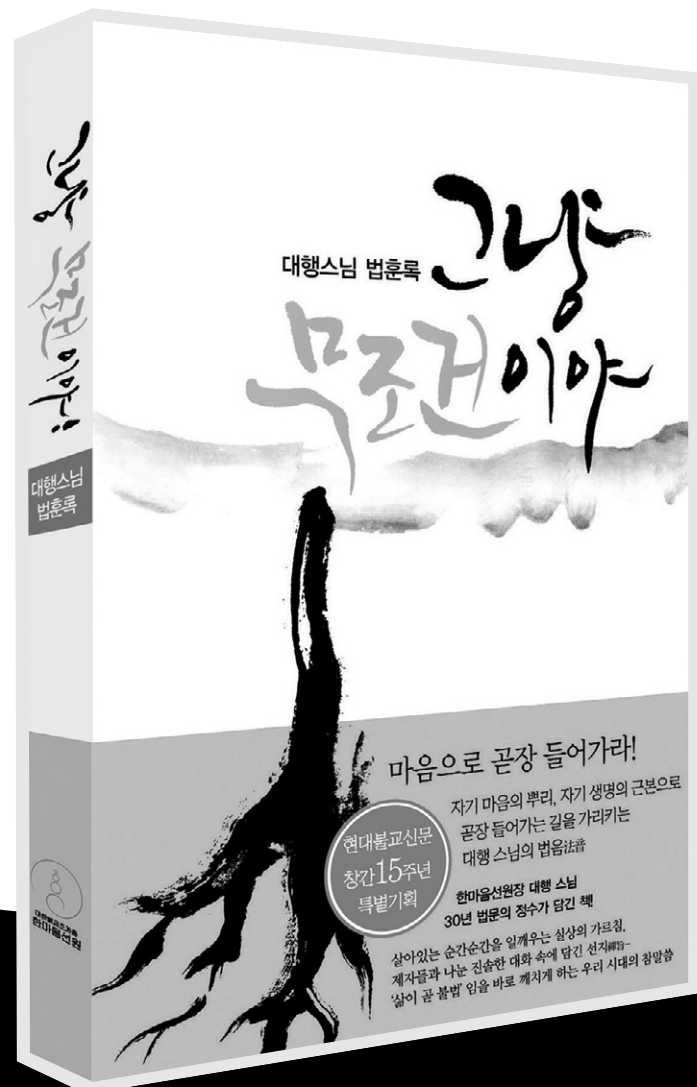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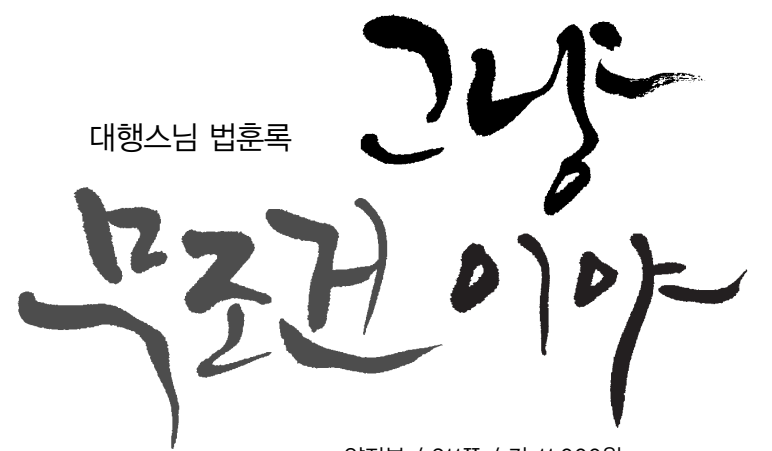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